

“미래 신사업 집중 지원... 中企벤처 혁신성장 마중물 댄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 첫 기자간담회
中企 성장위한 6대 추진과제 발표
미래사업 금융·비금융 전폭 지원
내년부터 5년간 24조 신규보증도
기술경영 애로 해소 '알파팀' 가동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보

기술보증기금이 중·벤처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24조원을 신규 보증한다.

차세대 반도체·미래 에너지 등 신사업 집중 지원, 중·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공략 지원, 지방·창업기업에 대한 복합금융 지원 등을 위해 기관 역량을 더욱 집중한다. '이노비즈기업'이라고도 불리는 기술혁신기업을 신속 지원하고 기술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알파팀'도 본격 가동한다.

기보 김종호 이사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지속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속에서 국내 중·벤처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6대 추진과제를 충실히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종합지원

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이 언급한 '6대 추진과제'에는 ▲미래전략 신사업 집중지원 ▲중·벤처기업의 스케일업, 글로벌화 지원 ▲R&D, 지식재산권 사업화 지원 강화 ▲지방·창업기업 중심으로 민간 벤처투자시장 보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완전한 회복 지원 ▲디지털 전환

을 통한 대고객 서비스 혁신이 두루 포함돼 있다.

기보는 미래전략 신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5대 분야, 14대 세부 산업을 추렸다. 첨단제조(항공우주, 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에너지(차세대 원자력, 미래 에너지), 디지털·통신(디지털 헬스, 미래 네트워크), 자동화(AI,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레드바이오, 융합바이오)가 여기에 포함된다.

김 이사장은 “조격차 미래전략산업을 정밀 설정하고 해당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패키지를 전폭 지원하겠다”면서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을 성장유망기업과 경영애로기업으로 나눠 기술이전사업화, 보증연계투자, 경영개선컨설팅, 저신용기업 특별보증 등을 메뉴판식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자력발전 관련 제품·용역, 서비스 등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하는 '탄소가치평가' 결과를 반영해 탄소감축분야에 대한 보증지원도 확대한다. 벤처기업, 창업기업의 추가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도 늘린다.

미래전략산업 등 영위기업 가운데 성장지속성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선 '창업초기'와 '성장·도약'으로 구분해 창업연한과 기술성장성 수준에 따라 사전 한도를 차등한다. 창업후 5년이 넘은 성장·도약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에 대해선 수출예상기업, 수출실적기업, 수출주력기업, 수출선정기업으로 각각 구분해 수출기업들이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료 감면 등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김 이사장은 “모태펀드 규모 축소, 스타트업 등에 대한 벤처캐피탈(VC)의 투자 감소 등에 대해선 민간주도하에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기조”라면서 “기보는 투·융자 복합금융을 늘리고 창업·지방중심으로 보증연계투자 지원을 확대해 위축된 민간 벤처투자시장을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보는 혁신기업 성장에 필요한 벤처투자금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올해 200억원 규모의 'VC벤처펀드특별보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중심으로

'팩토링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팩토링금융은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 후 대금을 판매기업에 선지급하고, 결제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대금 회수 지연, 미결제에 인한 기업들의 연쇄부도를 막고 안정적인 대금회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기보는 이외에도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의 완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만기연장과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동시에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에도 적극 협조해나갈 방침이다.

1989년 설립된 기보는 2017년 중·벤처기업부도 업무감독권이 이관된 후 보증지원 외에도 기술인력·보호, 기술거래 등 신규업무를 추가해 '기술혁신'과 '기술금융'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넓혀왔다.

특히,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중·벤처기업에 약 118조원의 보증을 지원해 안전판 역할 수행해왔다. 기술기업에 보증과 연계해 총 209개 기업에 1622억원을 직접 투자했고, 예비유니콘 96개사에 5786억원을 지원하는 등 기술혁신을 도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현대차 엑시언트, 美 대기질 개선사업 투입

(수소전기트럭)

2021년 TAG 프로그램 공모 선정
배기가스 저감 효과 등 높은 평가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질 개선사업에 투입된다.

현대차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주관하는 '2021년 TAG' 프로그램 공모에 최종 선정, 오는 2023년 3분기 캘리포니아에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5대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TAG 프로그램은 미국 EPA 주도로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미국 전역의 대기오염 저감을 목표로 EPA가 각 지역이나 주정부 산하 대기질 관리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접수해 지원하는 펀딩 프로그램이다. 해당 기관이 파트너를 선정해 컨소시엄 형태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면 이에 대해 EPA가 최종적으로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승인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대차는 이번 2021년 TAG 프로그램에서 캘리포니아 남부해안대기환경청이 주관한 프로젝트에 수소중전소 구축 및 운영 전문회사인 미국 퍼스트엘리먼트 퓨얼(FEF)사와 함께 참여했다.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트랙터 모델

미국 SCAQMD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의 대기질 관리기관으로, FEF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용하는 수소운반용 디젤트럭을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으로 대체하는 것을 현대차와 FEF에 제안했으며, 양사가 이를 받아들여 프로젝트가 성사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배기가스 저감 효과, 기술력, 지속가능성 등의 항목에서 EPA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350만 달러(약 48억원)의 보조금을 수주했다.

현대차는 향후 FEF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3분기 수소전기트럭을 공급할 계획이다. 차량은 캘리포니아 지

역에서 1년 간의 의무 실증사업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상업 운행에 투입된다.

현대차가 공급할 차량은 총중량 37.2톤급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트랙터 모델로, 180kW급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최고출력 350kW급 구동모터를 탑재했으며 1회 충전 시 최대 720km를 주행할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관리기구와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가 주관한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 입찰에서 최종 공급사 중 하나로 선정돼, 2023년 2분기부터 총 30대의 수소전기트럭을 공급할 예정이다. /양성문 기자 ysw@

SK주식회사 C&C, 협력사에 431억 지원

동반위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3년 간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SK주식회사 C&C가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SK주식회사 C&C, 협력사가 서면으로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SK주식회사 C&C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 및 임직원에게 총 431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내일채움공제, 건강검진 비용 지원 등(33억원) ▲공동기술개발 지원, 산업혁신운동 추진 등(31억원)

▲우수인력 채용지원, 창업기업 육성 등(197억원) ▲동반성장 협력대출펀드 조성 등(170억원)이 두루 포함돼 있다.

협력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 및 신규 고용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ESG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SK주식회사 C&C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에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되고 SK주식회사 C&C와 지속가능한 선순환 성장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유한킴벌리, 2022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유한킴벌리가 '2022년 지속가능성보고서(사진)'를 발간했다.

15일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회사는 2006년부터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어떤 부하를 미치고 있는지, 과

제는 무엇인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올해 보고서에는 ▲미래를 향한 유한킴벌리의 실천적 변화 모습과 성과, 미래 방향성 공유 ▲스페셜 페이지를 통한



ESG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전보건 경영 등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부문에 걸친 실천 노력 소개 ▲보다 투명하고 자발적인 ESG 데이터 공개 등을 담고 있다. /김승호 기자

국내 스타트업 15개社, 美 포브스서 인정

'2022년 포브스 아시아 100대 유망 스타트업'에 우리나라 15개 스타트업이 이름을 올렸다.

15일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미국 포브스지가 최근 발표한 관련 명단에는 백패커, 생활연구소, 와드, 크몽, 에이아 이포켓, 아파트멘터리, 닥터나우, 모비두, 엔코드, 페이이어, 피플펀드컴퍼니, 플라스크, 퀴드마이너, 서울로보틱스, 토스랩이 두루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 15개 스타트업 모두 중소기업부의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 중 14곳은 틱스(TIPS),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 멘토링 등을 지원받았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는

지난해부터 아시아 지역의 헬스케어, 물류·운송, 금융, 교육·채용 등 10여개 분야의 '100대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싱가포르가 19개로 가장 많고 한국은 홍콩(16개)에 이어 3번째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13개, 11개였다.

김용문 창업진흥원은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내 스타트업들이 국내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